

2012년도

문화재위원회(세계유산분과) 제4차 회의록

- 일 시 : 2012. 12. 18(화) 14:00
-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 출석위원 : 이상해, 김성일, 김정동, 김한배, 장 적,
노중국, 박언곤, 우경식, 이배용, 이혜은,
임돈희, 채미옥(총 12명)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목 차

【심의사항】

- 1 줄다리기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공동등재 대상 선정

【보고사항】

- 2 아리랑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등재 보고
- 3 한양도성 세계문화유산 잠정목록 등재 보고 등

1. 줄다리기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 공동등재 대상 선정

가. 제안사항

인류무형유산 공동등재 추진 대상종목으로 줄다리를 선정하고자 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공동등재 종목 공모 결과, 공동등재 요건을 충족시키면서 지자체의 의지가 강한
줄다리의 인류무형유산 공동등재 대상종목 선정여부를 심의하고자 함

다. 주요 내용

- 대상종목 : 줄다리기
 - 국내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줄다리는 제26호 영산줄다리와 제75호
기지시 줄다리가 있음. 또한 캄보디아, 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들과 일본,
중국 등에서 우리와 비슷한 형태의 줄다리가 전승되고 있어 공동등재
추진에 적합
- 추진개요
 - 추진 배경
 - 인류무형유산 심사 총량이 제한된 가운데, 국가 간 공동등재는 우선순위를
두어 심사함
 - 다국가 공동등재는 물적·인적 재원 확보가 수반되는 작업으로, 공동등재
주도국의 전문성과 역량을 인정받고 국가 브랜드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기회임
 - 추진전략
 - 공동등재를 위해서는 ① 해당유산의 다른 국가 전승여부, ② 등재에 대한
지자체의 의지, ③ 등재이후 공동등재 국가들과의 지속적인 교류협력 등이
중요함
 - 이에, 대상종목 지자체 공모 및 지자체별 추진현황을 파악하여 대상종목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추진현황

- 2012. 4월 지자체를 통한 등재 종목 공모
 - 줄다리기(당진시), 탈놀이(안동시) 제출
- 2012. 6월 줄다리기 공동등재 국내회의
- 2012. 9월 동남아시아 줄다리기 공동등재 사전협의
 -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등 3개국
- 2012. 10월 줄다리기 공동등재 관계기관 협의
 - 문화재청(국제교류과, 무형문화재과, 무형문화재연구실), 아태무형유산센터, 당진시

□ 향후계획

<주요일정>	<시기>	<주관부서>
- 국내 줄다리기 범위 조정 및 결정 - 무형분과위원회 심의	'13. 1월 ~ 2월	무형문화재과
↓		
- 공동등재 참여 가능국 섭외 및 협력파트너 선정 - 줄다리기 공동등재 참여 희망국 공개모집 (유네스코)	2월 ~ 4월	아태무형유산센터 국제교류과
↓		
- 등재신청서 작성을 위한 국내 줄다리기 관련 회의	3월	국제교류과, 아태무형유산센터
↓		
- 공동등재 신청서 작성을 위한 국가회의 개최 (2회)	5월, 11월	아태무형유산센터
↓		
- 공동등재 신청서 제출	'14.3월	국제교류과

라. 의결사항

- 줄다리를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공동등재 대상종목으로 선정함(원안 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2명, 가결 12명

2. 아리랑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등재 보고

가. 보고사항

아리랑의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등재를 보고 드립니다.

나. 추진현황

□ 추진배경

- 한국의 대표적인 민요이자 전국민이 행하는 아리랑을 유네스코에 등재하여 국제무대에서 한국의 가시성 제고 및 우리 국민의 문화적 자긍심 고취

□ 추진경과

- 2009. 8월 정선아리랑 등재신청서 제출
- 2012. 1월 '12년 우선 심사대상으로 아리랑 선정
- 2012. 6월 아리랑 수정 등재신청서 제출(전 국민의 아리랑으로 수정확대)
- 2012. 11월 위원회 개최 4주 전 심사보조기구 권고결과 공개
 - 심사소위원회 만장일치로 등재권고 판정
- 2012. 12월 아리랑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 등재 확정('12.12.5.)
 - 등재결정 : 제7차 무형유산위원회('12.12.3.~ 12.7. / 프랑스 파리)

□ 향후계획

- 아리랑 국가무형문화유산 지정
 - 무형문화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추진
- 아리랑 학술 조사 및 연구 지원 (아리랑 아카이브 구축)
- 아리랑 상설·기획 전시 및 국내외 정기공연 개최

다. 의결사항

- 원안대로 접수함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2명

3. 서울 한양도성 세계문화유산 잠정목록 등재 보고 등

가. 보고사항

서울 한양도성의 세계문화유산 잠정목록 등재 현황과 “한양도성 재탄생 종합 계획(안)”을 보고 드립니다.

나. 추진현황

- 2012. 4월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 대상 선정(문화재위원회)
- 2012. 6월 한양도성 보존·관리·활용 기본계획 발표(서울시)
- 2012. 9월 한양도성 관련 전담조직 신설(서울시)
- 2012. 11월 잠정목록 등재 신청서 제출(문화재청 → 외교부 → 유네스코)
- 2012. 12월 잠정목록 등재 확정 서한 접수(유네스코 → 문화재청)
 - 등재일 : ‘12.11.23
 - 등재기준 : ii, iii, iv, vi
 - ii) 한양도성은 고대 고구려 왕국의 도성 형식에 기원을 두고, 평양성과 개경도성의 특성을 계승하여 완성된 독창적인 한국 도성으로서의 위상과 형식을 갖추고 있다. 평지성과 산성의 구조가 결합한 포곡식 성곽이다.
 - iii) 한양도성은 문루와 성곽의 원형이 잘 남아있어서 축조 당시 조선시대 성곽 형식의 전통과 문명을 확인할 수 있다. 전체 길이가 약 18.6km로 현존하는 세계의 수도의 성곽유산 중에서 규모가 가장 크다. 현재 약 10.8km의 구간이 원형 또는 복원된 상태로 보존되어 있으며, 나머지 구간 가운데 일부는 지하 유적으로 남아있다. 또한 서울성곽은 동아시아에서 가장 오래 지속되었던 조선왕조의 수도 성곽의 각 시기별 축조 형태와 수리 기술의 역사적 증거가 기록과 함께 실물과 유적으로 남아 있다.

- iv) 한양도성의 입지는 풍수에 바탕을 두고 한반도의 지형 체계를 고려하여 결정되었으며, 내사산의 능선을 따라 성곽이 건설되었다. 한양도성은 형태적으로나 심상적으로 수도 공간의 안과 밖을 구분하는 경계로서, 내사산과 일체화된 장소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성곽은 자연적인 지세를 따라 지형을 잘 활용하여 축조되었기 때문에, 내사산의 굴곡과 도성의 안팎이 함께 조망되는 뛰어난 역사도시경관을 보여준다.
- vi) 전국 각 지역 백성들의 공역으로 성곽을 축조했는데, 구간마다 축조에 참여한 장인들의 실명(實名)이 새겨져 있다. 한양도성의 보존을 위하여 내사산의 지형이 잘 보존되어 왔으며, 도성 안의 하천 시설을 유지하기 위하여 내사산의 수종 등이 잘 관리되어 왔다. 조선왕조 오백년 동안 문루와 성곽을 주제로 집필한 문학 작품과 도성 풍경을 묘사한 회화 작품이 많이 남아있다.

다. 서울 한양도성 재탄생 종합계획(안) 요약

- 추진 방향 및 주요 사업
 - 역사와 전통이 보존되는 도성
 - 보존관리 지침 수립, 시장공관 이전, 보수·복원 조례 제정 등
 - 원형회복으로 하나되는 도성
 - 국공유지 구간 도성 복원 군사·사유지 구간 탐방로 개방 확대 등
 - 이야기가 있는 도성
 - 금석문 보존 및 활용, 해설사 양성 및 활용, 아카이브 구축 등
 - 마을과 조화롭게 공존하는 도성
 - 주변 건축물 관리 및 경관조명 개선, 인근 역사마을 보존, 문화센터 운영 등
 - 참여속에 치유하는 도성
 - 시민순성관 운영, 문화유산 교육, 안내판 개선 및 확충, 탐방안내센터 조성 등
- 향후 일정 및 소요예산
 - 한양도성 자문위원회 개최('13.1)
 - 재탄생 종합계획 수립 및 확정('13.1)
 - 2103년 예산(안) : 28개 사업 11,142백만원

라. 의결사항

- 원안대로 접수함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2명